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국민 대통합 이뤄내겠다”

2022 대선 잠룡에 듣는다

1 이낙연 민주당 대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 것인지, 종식된다면 시대적 환경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우리의 삶은 좀 더 나아질 것인지 내일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가야 할 대통령을 선출하는 차기 대선이 1년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에선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잠룡들을 중심으로 차기 대선을 목표로 하는 물 밑 움직임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대선을 1년 앞둔 내년 상반기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진보 진영의 심장 역할을 하는 호남 민심은 차기를 노리는 주자들을 신중하게 주목하고 있다. 광주일보는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는 여야 정치권 인사들과의 연쇄 인터뷰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리더십과 비전 등을 집중 조명해 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DJ(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최초의 지역 출신의 유력 대선 주자다. 특히, 그는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3선)과 전남지사를 지냈다는 점에서 호남의 현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내며 국정 전반을 꿰고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서울 정치 1번지인 종로에 깃발을 꽂은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당선되면서 차기 대선 고지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한 때 40%에 이르렀던 그의 지지율은 최근 반토막 나면서 정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내년 3월 당 대표직을 내놓고 대선 행보에 나서야 하는 그의 앞에는 쉽지 않은 각종 현안들이 쌓이면서 위기 감도 커지고 있다. 과연 이 대표가 민심의 눈 높이에 맞는 현안 해법과 시대 비전을 제시하며 순조롭게 대선 고도에 나설 것인지 호남 민심의 저변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광주일보는 5일 오후 국회 본관 민주당 대표실에서 이 대표와 1시간 동안 각종 현안들을 놓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담=임동욱 서울취재본부장

-한국판 뉴딜과 광주·전남 발전 방향은.

▲광주는 디지털뉴딜의 핵심인 인공지능을, 전남은 그린뉴딜의 핵심인 풍력을 잘 잡았다. 한국판 뉴딜이 선택과 발전을 하지는 취지라면 광주·전남의 전략과 맞아떨어진 것이다.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의 산업, 전남이 풍력 등을 야심차게 하면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광주·전남이 행정 통합에 나서고 있는데.

군공항 이전 국방부 역할 중요
특별법 처리 등 적극 나설 것

한국판 뉴딜 광주전남 꾀 나서야
정부와 맞장 뜰 만큼 문제 제기해야

지지를 등락은 자연스런 현상
개혁·서민·미래입법 대표 소명

▲총론에서는 찬성하고 각론에서는 이견이 나올 수 있는 복잡하고도 미묘한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지자체 지도자와 주민이 이해를 내야 한다. 광역 발전 전략을 함께 세운다는 취지는 옳은 것이다. 결국은 주민투표까지 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주목하고, 중앙 정부와 중앙정치가 지원할 게 우선지 고민하겠다.

-군 공항 이전이 뜨거운 감자다. 해결책은.

▲국무총리로 일할 때 대구 군공항문제를 다뤄보니 국방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했다. 광주 군 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의 지원을 가능케 하는 특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민주당 간 사에게 최근 부탁을 했고, 서울 국방장관에게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국판 뉴딜을 앞두고 광주역(광역교통망), 무안공항(동북아허브공항 및 항공산업 클러스터), 광양·여수항(해양관광 및 물류 허브 중심) 등 삼각축 중심으로 판을 그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광주전남연구원 계획을 구체화하면 좋겠다. 중앙정부가 먼저 나서 주는 것은 좋지 않다. 연계성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현 정국에 대한 분석과 미래 비전을 밝히고 있다.

가지면서 상승효과를 내는 게 무엇인가를 지역에서 먼저 찾아 줘야 한다. 중앙정부와 '맞장을 뜰 만큼'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에 농어촌 분야가 배제됐다. 농어촌 미래를 위한 제언이 있다면.

▲농어촌 문제가 없다고 해서 국정에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다. 농어촌 문제는 스마트팜, 청정 농업 등이 그린뉴딜에 해당한다. 기본은 농촌도 스마트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남답게 청정 농수산업 브랜드화도 필요하다. 전남 농수산물이라면 신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서민의 삶이 피해를 입고 있다. 대책과 비전은.

▲무엇보다 코로나19 감염병에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하루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지난 10개월 동안 방역과 경제를 병행하면서 양쪽 다 비교적 성공했다는 국제적 평가를 받지만 서민의 삶은 굉장한 고통이었다. 그동안 추경을 편성해 서민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 무엇보다

민생에 방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최근 지지율이 다소 하락·정체상태. 원인이 무엇인지, 반등 시기는 어떻게 보는가. 호남 지지율도 기대에 못 미친다.

▲독주는 이례적이다, 혼자 달렸으니깐. 지금부터 긴 레이스에 들어가는 것이다.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그동안 독주체제였다는 게 예외적인 것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인민들의 진가가 드러날 것이며, 그에 대해 국민이 냉정하게 선택을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당연히 호남인들도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며 결정적 시기에 그에 맞는 선택에 나설 것이다. 조금씩 생각하지 않는다.

-리더십이 합리적이고 엄중하지만 시대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구체적 성과가 미흡하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움직이는 게 이낙연의 움직임이다. 민주당의 성과를 내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낙연의 일이다'라고 받아 주는 게 좋다. 지난 두 달 사이에 추경, 의료계 파업 종식, 김대중 대

령 아들 제명, 동료의원 체포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과거에 없었던 일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 민주당이 어느 정당보다 깨끗하고 당당한 정당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진두지휘하고 있다.

-당 대표로서 꼭 마무리 짓고 싶은 것은.

▲이번 정기국회 입법과제 중 크게 3가지가 중요하다. 첫째는 '개혁입법'이다. 공수처 완성, 공정경제 3법 처리 등이 이에 포함된다. 둘째는 '민생입법'이다. 서민을 돕는 것이며 고용보험·산재보험 확대 등이 중요하다. 셋째는 '미래입법'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을 키우고 미래를 지원하는 육성지원과 규제완화 등이다. 이 3가지를 해야 문 정부 다음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걸 내가 대표가 되려는 이유이기도 했다.

-기본 소득에 대한 입장은. 부동산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짧게는 김대중 정부 이후, 길게는 해방 이후 축적된 복지체계를 한 두 가지로 대체할 수는 없다. 민주연구원에 고용불안정, 소득불안정, 예측불가능한 변화가 오는 시대에 맞는 연구를 주문해 놓았다. 이를 통해서 한 두가지 매뉴가 아니라 새로운 그림을 그릴 것이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당장 전월세 보안을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중장기적인 주거대책 마련을 위해 당내에 미래주거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좀 더 미래를 보는 주택정책을 만들어 내놓을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전은

▲'함께 잘 사는 나라'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의 것도 빼앗기지 않고 지금보다 삶이 나아지는 것이다. 최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극단적 보수 세력 등 사회 일부분에서 아직 탄핵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적폐정권의 과정에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원래 갈등이 있는 데 분노를 키운 셈이다. 이제는 통합의 정치로 가야 한다. 협치보다 더 큰 차원의 '국민통합'을 위한 물 밑 모색을 하고 있다.

-천문 성장 의원 50명이 민주당의 4.0 연구원이라는 메드마크 싱크탱크를 꾸리며 세력화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에 친문(친 문재인)만 있고 다양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느 정당이나 열성적인 지지자가 있고 비판적인 지지자가 있다. 그런 현상이라고 보면 된다. 나의 아버지가 지독한 (민주당) 열성 지지자였다. 민주당은 수십 년 동안 계파가 있었지만 최근 계파가 없어졌다. 미래 국가 정책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궁리하고 제시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면 거기에 충실해야 한다. 당내에 정책을 놓고 의견 차이가 있다. 계파 정치는 지양해야 한다.

-호남과 광주는 이 대표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나를 키워줬다. 나의 내면이 형성됐다. 내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우리는 피 끓는 학생이다. 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는 광주학생탑 비문이다. 정신을 키우고 나의 육신을 자라게 한 게 호남이며, 정치적 동력이다. 호남의 역할이, 호남인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것을 호남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인식했으면 좋겠다.

/정리=오광복 기자 kroh@kwangju.co.kr
/사진=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국회 본관 민주당 대표실에서 광주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www.woori-hospital.com

의료광고심의필 제 200107-중-103754호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겨울철 넘어짐 골절질환

“ 척추골절, 손목골절, 고관절골절 ”

첨단우리병원에서 치료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